

가라앉는 《미래통합당》, 그 운명은

남조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미래통합당》이 쇼크상태에 빠져있다. 권투경기에서 썩세기를 당하고도 일어선지 못해 당가에 실려나간 선수처럼 말이다.

이것은 우연도 아닌 필연, 다르게 될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라는것이 남조선정계와 언론들의 분석이다.

배는 뒤집히고 구원될 가망도 보이지 않는다

남조선에서는 전통적으로 50대와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보수성향이 강하고 20대와 30대는 진보색채가 짙은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 중간에 있는 40대는 중도경향이 강해 이 연령층의 표심이 어디로 쏠리는가에 따라 진보와 보수사이의 대결에서 판가름이 결정되어왔다.

지금 40대의 저울추는 보수가 아니라 진보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있었다.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더우기 주목되는것은 이전에 보수경향이 강하던 50대에서도 지금은 보수를 대표한다는 《미래통합당》에 등을 돌리고있는것이다. 광주인민봉기와 1987년 6월의 인민항쟁을 직접 목격하고 주도했던 세대가 지금의 50대를 이루고있으니 득재와 부재

개개 망한 집안에 앞을 내다보아도 희망이라는 빛마저 보이지 않는다.

말 그대로 《미래통합당》의 앞날은 절망적인것이다.

의 대명사인 《미래통합당》이 경멸과 배척을 당할수밖에 없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은 장차 이 50대가 60대에 이르게 되면 20대부터 60대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보수에게 등을 돌릴것으로 예측하고있다. 하여 《미래통합당》의 내부에서는 갈수록 험악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남조선에서 정치호름을 결정하는 사회의 주류가 진보쪽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것이 객관의 평가이다.

보수를 대표하는 《미래통합당》은 남조선의 거의 전 지역에서도 배척당하고 있다.

지금 보수경향이 강해 《미래통합당》에 어느 정

도 지지를 보내고있는 지역은 평남지역뿐이라고 한다. 이 지역을 제외한 남조선의 대다수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은 민심의 외면과 배척을 당하고있다.

한때 남조선에서는 보수정당이었던 《자민련》을 가리켜 《총청도의 자민련》이라고 하였다. 총청도에만 지지 기반을 가지고있는 지역정당이였기때문이다.

오늘 《미래통합당》의 처지가 지난 시기의 《자민련》처럼 《평남지역의 미래통합당》으로 되었다.

그나마 《보수터벌》이라고 불리우는 대구와 경상도 지역의 경우에도 박정희군사독재 《정권》이 만들어낸 넓은 지역감정때문에 주민들이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있는것이 《미래통합당》은 그자체로서는 민심의 온전한 지지를 받을수 없는 완전 망한 정치실체인것이다.

얼마전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은 겨우 10%계선 수준에 그쳐 이 당이 얼마나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졌는가를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었다.

망망한 바다에서 배는 뒤집혔는데 구원될 가망도 전혀 보이지 않는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가급한 처지이다.

왜 민심의 버림을 받았는가

정당은 민심이라는 바다우에 떠있는 작은 쪽배에 불과하다.

민심의 물결이 잔잔할 때 배는 건재해도 무서운 격랑을 일으키면 배는 순간에 뒤집혀 가라앉기마련이다.

남조선에서 이전에 《미래통합당》과 보수를 지지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결별의 신호를 보내고있다. 그것은 비단 오늘에 와서가 아니라 이미 수년전 박근혜역도를 초보항쟁으로 탄핵할 때부터 형성되어온것으로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민심은 왜 《미래통합당》에 등을 돌렸는가.

그것은 《미래통합당》과 려대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민심의 지향과 요구와는 동떨어졌기때문일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보는것은 자주, 민주, 통일이고 인간답게 살아가갈수 있는 삶의 보장이다. 이것은 외세에 의해 나라가 돌로 갈

라지않는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가급한 처지이다.

라진이래 오늘까지 변함이 없는 남조선인민들의 갈망이고 지향이다. 모진 탄압속에서도 지어 수많은 아까운 목숨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10월인민항쟁, 4.19인민봉기를 거쳐 광주인민봉기, 6월인민항쟁, 반미초출시위, 대규모초보항쟁으로 줄기차게 굽이쳐온 남조선인민운동사의 좌표는 시종일관 자주였고 민주였으며 통일이였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조상때로부터 민심의 이러한 요구에 정면도전하여왔다.

이 당의 원조상인 리승만 《정권》이 2세의 리복에게 따라 전조선적인 통일정부수립을 요구하는 우리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여 총칼로 수렴된 《정권》이다.

그러다나니 민심의 지지를 받을수 없었고 부패무능하였으며 외세에 더욱 비굴하게 매달리고 어리석은 《북진통일》을 부르짖으면서 극악한 레와 폭력으로 독재 《정권》을 연명해왔다. 그

러다가 성년 4.19인심에 의해 무너지고 독재자는 하와이로 출항을 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보수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정희군사독재 《정권》은 또 어떻게 출현하고 18년 장기독재가 어떻게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게 되었는가.

외세의 막후조종과 지원밑에 5.16군사쿠데타라는 비법적인 방법으로 출현하였다.

4.19봉기로 터져나오던 민주화열망을 땅으로 장갑차, 《계엄령》으로 짓밟으며 권력을 빼앗아친 박정희였다.

이 《정권》에는 여당초 민심이라는게 없었다. 추악한 권력야욕과 부패가 있을뿐이였다. 그러다나니 권력을 지탱해보려고 외세가 하라는대로 남조선인민들이 반대하는 일본과의 굴욕 《협정》도 서둘러 체결하고 시종일관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반동일책등을 벌리였다.

박정희의 18년에 걸친 독재 통치하에서 남조선은 《철강없는 거대한 금속》으로 변하였으며 인민들의 자유와 인권, 삶은 여지없이 짓밟혀졌다. 결과 부마항쟁과 《10.26사태》로 비극적인 종말을 고한 《유신》 독

재 《정권》이다.

그뒤를 이어 출현한 전두환, 로태우, 김영삼, 리명박, 박근혜에 이르기까지의 보수 《정권》들 역시 외세에게는 아부굴종하고 동족과는 대결하며 인민들우에 군림하여 억압하고 략탈하는 범죄의 행적을 남기였다.

최에는 벌이 따른다고 민심을 짓밟고 파쇼와 반통일, 반인민적인 정책에만 매달리며 부정부패행위를 발명해온 이 보수 《정권》들이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오늘도 각개의 지란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민심의 심판을 거듭 거듭 받아왔으면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새 길을 걸어야겠으나 《미래통합당》과 그 조상들은 당의 간판이나 형식적으로 바꾸고 행동은 과거와 똑같은것을 반복해왔다. 웃은 그나마 《새우》이라며 걸렸는데 몸통아리는 썩고 골맹이내가 물친 풍기는 낡은것이었던것이다.

최근년간에도 괴로운 광주인민봉기를 《폭도들의 란동》으로 모독하고 저때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이 꽃망울이 피기도 전에 목숨을 잃은 《세월》 호참사를 단순

한 《교통신고》인듯이 떠벌려 유가족들을 비롯한 온 남녘겨레의 분노와 저주를 받은 《미래통합당》의 보수털거지들이다.

개교리 3년 가도 황도될수 없다는 말은 《미래통합당》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민심의 저주와 규탄속에 오래전에 저승에 간 박정희, 민심이 탄핵하여 감옥에 보낸 박근혜파우를 신주모시듯하며 그 피비린내나는 《항수》에 아직도 물젖어있는 보수적역당에게 민심이 완전히 당연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미래통합당》에게는 약도 없다. 이따위 당은 꼭 망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과 민심에 시시각각으로, 사사건건 역행하는 보수적무리들에게 남조선인민들이 내린 준엄한 판결이다.

력사와 민심의 범정은 자비를 모르며 판결은 최종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지금 안락으로 얻어맞고 망하게 된 《미래통합당》은 몰락인원을 찾는 《도론회》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참배》니 하며 낮간지러 온 연극들을 놀고있다.

하지만 그 기만성을 날일 제 깃발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심판대에서 영영 벗어날길 없는 《미래통합당》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민족의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 소동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광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5월에 들어와서도 남조선군부는 《년례적인 훈련》,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준수하였다.》고 횡설수설하면서 공화국을 위협하는 군사적대결방동을 계속 부리고있다.

지난 5월 6일에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소속 전투기 20여대와 해군 2함대소속 고속정 등을 조선서해지역에 내몰아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전쟁연습의 불꽃이 자칫 충돌의 불씨로 번져질수도 있는 최대로 예민한 지역이 바로 조선서해 열점지역이다. 남조선군부가 이것을 모를리 없다. 긴장격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런 화약고우에서 위험한 불장난을 할수가 없다. 결국 그것은 대결을 고취하는것이고 북남군사분야합의에도 배치되는 전쟁행위인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6월에 가서도 룹해공군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또다시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한다.

현실은 결과 속이 다른 남조선군부의 위선적이며 호전적인 정체를 잘 보여주고있다.

결론으로 《평화》를 위유지만 여전히 동족대결을 추구하고 그 준비에 여념이 없는것이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다.

남조선군부가 민족의 평화지향에 계속 역행한다면 차레질것은 수직과 오욕뿐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단평

가급한 처지

망조가 든 남조선의 보수파 거리들이 얼마전 보수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를 논하는 《도론회》라는것을 열었다고 한다. 가관은 그 모임장소에 토론자로 나서서 보수세력들에게 일장 훈시를 늘어놓은것이 《사이비진보학자》이 라는것이다.

이자로 말하면 한때 학생시위에도 참가했다고는 하지만 동료들이 감옥에 끌려가는데 겁을 먹고 학생운동을 포기한 변절자이며 진보정당들을 이리저리 오가며 로선과 강령문제로 마찰을 일으키다가 통합진보당을 와해분열시키는데 앞장선 기회주의자라는것이 남조선세간의 평이다.

보수파 거리들속에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이런 나철사한 인간한테서 구역질나는 강의까지 받았는가.

기울어진 배에서 그나마 제노라 하던자들도 줄줄이 물에 빠져들고 이제 남아있는자들속에 눈에 띄는 인물도 없는것이 보수를 대표한다는 《미래

통합당》의 가급한 처지이다.

배는 이미 절반 물속에 잠기였는데 배를 살릴 방도도 떠오르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사이비진보학자》에게까지 손을 내민것이다.

그것은 꼭 물에 빠진자 지푸라기 잡는 격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이 회한 한 광경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과거 저들을 헐뜯는데 앞장섰던 진중권에게 충고와 조언을 듣는 불쌍한 당이 되었다.》, 《물에 빠진자 지푸라기잡는 격으로 진보진영에서 밀려난 사이비학자에게까지 기대를 걸고있는 형국》이라고 야유조소하였다.

그러나 량심도, 신의도 헌신짝처럼 차버려 민심의 중요와 배척을 받는자의 입에서 무슨 온전한 조언이 나오겠는가.

민심을 저버린 배신자의 너두리를 명철처럼 부여잡은 보수세력거리들이 각개의 조소와 비난을 받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일혁

남의것을 제것이라고 우기며 무분별하게 날뛰는자들이 있다. 바로 일본이다.

얼마전 일본당국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작성하였다.

일본의무성이 만들어 공개하는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정부문서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해마다 발표하는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쪼아박곤 하였다.

일본이 대외정책본건인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명기해나선것은 세기를 이어가며 변함없이 령도강탈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는자들의 괴뢰치한 망동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다양한 력사적, 법적근거가 없다는 완전한 생역지이며 꾀변이다.

독도는 력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이다.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증명

해주는 자료들은 일본에서도 적지 않게 나왔다.

1690년대에 일본의 에도막부와 쓰시마도주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토라는것을 인정하고 그 섬으로의 일본인

들의 도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였다.

1785년 일본의 지리학자 야하시 시헤이가 그린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령토로 표기되어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본토와 같은 색으로 표시한 지도에는 《조선의 령토》이라는 문구까지 씌여져있

었다.

일본의 조선강점시기 일본 력사학자 가즈모리가 제작한 《일본력사지도》와 《신원일본력사지도》에도 독도 령토라고 독도를 계속 《일본 령토》라고 우겨대고있다.

남의 나라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것은 채집야망이 벅ச카지 들어찬 일본당국만이 부릴수 있는 얼빠진 망동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괴뢰치하게 들고나오는 목적은 그것을 여론화, 국제화하여 독도분쟁을 일으키고 조선체제를 위한 조건과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실현될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김응철

외교청서를 통해 본
독도강탈야망

들의 도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였다.

1785년 일본의 지리학자 야하시 시헤이가 그린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령토로 표기되어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본토와 같은 색으로 표시한 지도에는 《조선의 령토》이라는 문구까지 씌여져있

광주인민봉기 40년을 계기로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주장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족일보》가 19일 《광주정신,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계엄령》을 발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시민을 탄압하는 전두환반역무리에 맞서 광주민중이 《비상계엄해제》, 《전두환퇴진》의 구호를 웨치며 정의의 항쟁을 일으킨지 40년이 된데 대해 밝혔다.

전두환군부세력은 항쟁참가자들을 《폭도》로 매도하며 땅크와 직공기, 중무장한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광주

광주학살범죄를 인정할것을 요구

남조선 《경향신문》이 18일 5.18광주학살범죄를 인정할것을 요구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5.18광주학살에 동원되던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과 공수부대 리더장, 대대장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5.18진상규명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자료가 폭로되었다고 밝혔다.

학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면 5.18의 진상규명은 훨씬 빨라졌을것이라

고 신문은 주장하였다.

신문은 이제라도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국민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두환처럼 끝끝내 버린다면 단호한 처벌을 면할수 없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적폐청산에 펼쳐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국민주권련대가 17일 광주학살주범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5.18민중항쟁이 일어난지 40년이 된데 대해 밝히고 전두환군부독재

리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서 이 땅의 민주화를 실현할수 없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모두가 적폐청산에 펼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검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극악무도한 독살만행

인류력사에는 침략과 범죄의 행적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그 어느 시기를 살펴봐도 일본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강행한 것과 같은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일제가 당시 국가주권의 대표자였던 고종황제를 독살하고 그 범죄를 가리우기 위해 괴뢰치하게 책동한 사실은 우리 민족을 짓밟고 식민지노예화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였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일제가 고종황제를 독살할 음모를 꾸미게 된것은 반일 감정을 가진 그를 제거함으로써 《을사5조약》날조사건의 진상을 가리우고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화하기 위해서였다.

어느해인가 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1919년당시 일본군내청의 회계심사국 장관이었던 구라모미 유자부로의 일기가 공개된바 있다. 거기에는 일제의 초대조선총독이었던 데라우제가 조선주둔사령관 하세가와에게 《을사5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고종황제를 독살할것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자료가 기록되어있었다.

이 자료는 고종황제독살사건의 계기가 다름아닌 《을사5조약》과 관련되어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알려진것처럼 1905년 일제는 조선강점의 범죄적목적 실현에 《합병성》을 부여해보려고 조선봉건정부에 《을사5조약》체결을 강요해나

그러나 이것은 황제인 고종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고종황제의 사망정위를 직접 목격한 시너 2명을 암살한것도 그 단적실례이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기마련이다.

1921년 중국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가 작성발표한 《제2차 독립선언서》와 고종황제의 서자인 의친왕의 친서에 의해 그 내막이 드러났다.

거기에는 《고종황제가 죽은 직후에 그의 운몽에는 붉은 반점이 많이 나타나있었으며 민영기, 홍승식 두사람이 시신을 검진했을 때에도 운몽에 붉은 반점과 함께 미란이 많이 들어나있는것을 발견하고 독살이라고 주장하자 일제가 그들을 잡아갔었다.》라는 내용이 씌여있었다.

다른 자료에는 일제의 사족을 받은 간신 한학석이 친독악이 든 식사를 한 황제가 갑자기 《무엇을 먹었길래 이렇게 괴로울까...》라고 하며 몸부림치다가 운명했다. 그때 황제의 두눈은 새빨강고 점진에 반점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모든 자료들은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 무참히 독살되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의 최고대표자를 뒤쫓아 시키는것과 같은 극히 오만하고 횡포한 범죄를 저지르다 못해 나중에 독살한 일제의 친인공노할 죄행은 세월이 가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

